

Symbolism and Cultural Meaning of Plants in Korean Song Lyrics : An Eco-Humanities Interpretation across Popular Songs, Textbooks, and Hymns

Yoo, Ki-ou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yooko@kangwon.ac.kr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symbolism and cultural meanings of plants in Korean song lyrics across popular songs, school music textbooks, and hymns. It examines how plant imagery reflects emotion, memory, and cultural values, and interprets these expressions through an eco-humanities perspective linking nature and the humanities.

Methods A total of 3,044 songs were analyzed: 1,742 popular songs, 355 elementary, 199 middle, and 103 high school songs from textbooks, and 645 hymns. Plant names found in song titles and lyric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by frequency and symbolic context. Compar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differences among genres.

Conclusions Plant names appeared in 290 songs (9.5%), representing 136 species. The rose was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azalea, reed, lawn, willow, forsythia, and camellia. Popular songs used plants to express love and longing, textbooks reflected seasonal and educational themes, and hymns conveyed purity and faith.

Overall, plants in Korean lyrics act as symbolic and emotional links between humans and nature, reflecting cultural and historical emotions. The study underscores the eco-humanities perspective, revealing how natural imagery deepens the cultural resonance of Korean music.

Keywords song lyrics; plant symbolism; cultural meaning; eco-humanities; interdisciplinary study; Korean music; rose; azalea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2.312.002

Received: Nov. 20. 2025 ; Reviewed: Dec. 10. 2025 ; Accepted: Dec.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노랫말 속 식물의 상징과 문화적 의미

-가요·교과서·찬송가에 나타난 식물과 인문학의 융합적 해석-

유기억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분석 범위와 방법
 3. 분석 결과 및 의의
 4. 맺음말
-

1. 서론

노래는 인간의 감정이 언어와 음률로 승화된 예술 형식이다. 인간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의 순간마다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왔다. 기쁨 때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 때는 서정적인 가락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음악은 이처럼 감정의 언어이자, 인간 내면의 정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화음은 인간 존재의 숭고함을 드러내고,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은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섬세하게 일깨운다.

그러나 음악을 구성하는 두 축인 선율과 언어 중에서도 ‘가사(lyrics)’는 인간의 감정과 상징이 가장 밀도 있게 집약된 언어적 공간이다. 작곡가가 음을 통해 감정을 형상화한다면, 작사가는 단어를 통해 세계를 재현한다. 특히 작사가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시대의 정서와 집단적 기억, 사회적 경험이 중층적으로 담겨 있다. 사랑, 이별, 고독, 그리움 등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주요 정서를 형성해 온 핵심어이지만, 그 속에 은근히 자리한 또 하나의 상징체계가 있다. 바로 식물의 언어, 즉 꽃과 나무, 풀과 열매로

www.kci.go.kr

이루어진 자연의 상징들이다.

노랫말 속 식물은 단순한 배경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인간의 내면 정서를 비유하며, 때로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기능한다. “꽃 이름은 사랑의 말이다”라는 한 문장이 시사하듯, 꽃은 인간의 감정을 번역하는 또 다른 언어이며, 사랑과 추억, 저항과 희망을 은유하는 상징적 기호이다. 한국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진달래, 동백, 장미, 갈대, 도라지 등은 각기 다른 시기와 맥락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언어로 작동해왔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굴곡진 역사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술은 종종 직접적인 발화가 아닌 우회적 표현을 통해 사회 현실을 반영했다. 검열과 억압이 존재하던 시대, 노랫말 속 식물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저항의 언어이기도 했다. 예컨대 동백꽃은 피와 희생의 상징으로, 갈대는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시대의 불안으로, 진달래는 순정과 이별의 정서로 읽혔다. 이처럼 식물은 한국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감정의 곁을 대변하는 정서적 코드로 작동해 온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이러한 식물의 상징성을 노랫말 속에서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어느 날 우연히 고향집 오래된 책장에서 발견한 『1970년대 추억의 포크송』을 다시 펼쳐 보면서, 노랫말 속에 숨어 있는 자연의 언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후 가요집과 찬송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등 총 50여 권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한국 노랫말에 등장하는 식물의 종류와 빈도, 상징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현대사회는 학문과 예술의 경계가 해체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상호 융합되는 시대이다. 식물과 노랫말의 결합은 단순한 미적 흥미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언어와 예술 속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융합 연구의 장이 된다. 또한 음악 교과서와 대중가요, 종교음악 등 서로 다른 문화 영역 속에서 식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정서 구조와 문화적 상징 체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식물의 출현 양상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상징이 교차하는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가 대중 문화 속에서 잊혀진 자연의 언어를 복원하고, 예술과 생명의 조화를 모색하는 인문학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연구의 분석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식물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총 3,044곡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¹. 그 구성은 대중가요 1,742곡,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355곡, 중학교 교과서 199곡, 고등학교 교과서 103곡, 그리고 찬송가 645곡이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곡(song)’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곡의 판본이나 일부 가사 변형은 원곡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특정 시대의 변천을 추적하는 것보다 노랫말 속 식물의 언어적·상징적 관습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시기 구분보다는 가요·교과서·찬송가라는 분야별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자료는 다양한 인쇄본을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특히 1970년대 포크송 선집, 가요집, 찬송가집,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등 약 50여 권을 직접 구입·열람하여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교과서의 경우 동시대에 사용된 판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편집이나 가사 수정에 따른 변동을 최소화하였다.

가사 분석은 제목과 본문을 모두 포함하여 식물명이 등장하는 모든 예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어의 일반 명칭(예: 진달래, 개나리, 갈대)을 중심으로 표제어 사전을 구축하고, 통용되는 이명이나 비표준 표기(예: 월계꽃=들장미, 장미덩쿨 등)도 함께 색인하였다. 복수형이나 접미 결합 형태(‘-꽃’, ‘-잎’)는 기본형으로 환원하되, 의미가 변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기로 남겼다. 또한 지역적 언어 차이로 인해 실제 지시 대상이 다른 경우(예: 김유정의 「동백꽃」에서의 동백=생강나무)는 문맥에 따라 주석을 달아 구분하였다.

이때 단순한 자연명칭이나 상징어 중에서도 실제 식물을 지시하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예: ‘갈잎’)이나,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외래 식물(예: 야자수, 레몬, 파파야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동일한 식물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 식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2회 이상 등장한 식물 69종 중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15종을 제외하고, 총 54종을 해설 대상으로 삼았다.

1 유기역. (2023). 노랫말 속 꽃 이야기. 황소걸음; 유기역. (2018).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무 이야기. 지성사.

빈도 산정은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원칙에 따라, 한 곡 내 동일 식물이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한 번만 계산하였다. 반대로 하나의 곡에 여러 식물이 함께 등장할 경우는 각각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분야별 전체 곡수를 분모로 하여 상대빈도를 계산하였고, 서술에서는 절대빈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식물명은 단순히 등장 횟수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 기능에 따라 여러 층위로 분류하였다. 첫째, 식물학적 기준에 따라 자생식물과 외래식물, 관상식물과 식용식물 등으로 나누었고², 둘째, 문화기호학적 층위에서는 계절의 상징(봄·여름·가을·겨울), 정서의 코드(사랑·이별·그리움·저항·신앙), 그리고 공간의 상징(고향, 섬, 강가, 갈대밭 등)으로 세분하였다. 셋째, 교육적 층위에서는 교과서 속 식물이 학습이나 생활문화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 찬송가에서는 신학적 의미(순결, 희생 등)로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해설 대상 54종은 등장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각 항목은 (1) 식물의 생태적 특징과 저자가 관찰한 인상, (2) 가사 속 의미망과 상징적 기능, (3) 학명과 어원, (4)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명칭, (5) 유사종과의 비교, (6) 꽃말 등의 순서로 구성하였다³. 이러한 항목별 기술을 통해 식물의 실질적 속성과 문화적 상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모든 가사에서 식물 키워드를 전수 조사하여 목록을 구축하였고, 둘째, 동의어와 변이형을 정규화하였다. 셋째, 전체 및 분야별 빈도를 산출하여 공기(共起)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넷째, 등장 빈도가 높은 주요 식물(장미, 진달래, 갈대, 동백, 도라지 등)을 중심으로 주변 어휘와 정서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가요·찬송가 간의 상징 기능 차이를 비교하여 식물의 의미 변화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모호한 사례는 별도의 목록에 기록하고, 포함·제외 판단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가사 인용은 분석의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였으며, 상업적 전재를 지양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상호 평가 지수(Inter-coder Agreement)를 직접 산출하지는 못했으나, 분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인쇄본 중심의 수집 방식으로 인해

2 박수현. (2008). 한국식물 도해도감 2: 양치식물.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2017). 국가표준식물목록(개정판). 국립수목원.

3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2014). 이야기가 있는 꽃말을 찾아서. 충청남도 산림 환경연구소.

디지털 음원이나 비공식 유통곡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둘째, 변안곡의 원문과 한국어 가사 간의 의미 변화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으며, 셋째, 시대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계열 분석은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야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표본을 통해 노랫말 속 식물의 관습적 사용 양상과 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향후 인문학과 생명문화 연구의 교차점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분석 결과 및 의의

3.1. 식물 출현 종수 및 빈도

본 연구에서는 총 3,044곡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식물명이 등장하는 빈도와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물명이 등장하는 곡은 모두 290곡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약 9.5%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약 10곡 중 한 곡 정도에서 식물의 이름이 노랫말에 사용된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노래 속 식물이 단순히 배경적 장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빈도와 의미 체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된 290곡에서 확인된 식물의 종류는 총 136종으로, 한국어 노랫말이 지닌 어휘적 다양성과 상징적 폭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사 속 식물은 종류별로 그 출현 빈도가 상이했는데, 이 가운데 장미(44회)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장미는 사랑, 아름다움, 고통 등 다양한 감정의 층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식물로, 시대와 장르를 막론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 뒤를 이어 진달래(19회)가 등장했으며, 이는 봄의 계절감과 이별의 정서를 동시에 나타내는 한국적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갈대와 잔디(각 15회), 버드나무(12회), 개나리와 동백나무(각 10회), 백합(9회), 민들레·찔레·아까시나무(각 8회), 라일락과 소나무(각 7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노랫말 속 식물이 계절적 상징, 정서적 메타포, 혹은 자연 친화적 이미지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식물의 출현 양상은 장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먼저 가요의 경우, 전체 1,742곡 가운데 192곡(약 11.0%)에서 식물이 등장하였으며, 등장한 종류는 총 86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장미가 3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갈대(14회), 잔디(12회), 버드나무·진달래(각 10회)가 이었다. 가요는 개인의 감정과 시대의 정서를 직

접적으로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식물은 단순한 자연물이라기보다 인간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어로 기능하였다. 장미의 경우 사랑과 열정을, 갈대는 흔들리는 마음과 슬픔을, 진달래는 순정과 이별을, 버드나무는 회상의 정서를 나타내는 등 감정의 메타포로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가요 속 식물은 주로 사랑, 이별, 그리움, 회한 등 정서적 주제와 결합하여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보다 생활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이 두드러졌다. 총 355곡 중 62곡(17.4%)에서 식물이 등장하였으며, 종류는 76종으로 가요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학습자의 흥미와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개나리와 콩이 각각 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도토리·잔디·미나리·진달래·밤·소나무·백도라지가 각각 3회씩 등장하였다. 이러한 식물들은 모두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자연물로, 노랫말 속에서 계절의 순환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노래에서는 식물이 감정의 상징보다는 자연 친화적 교육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총 199곡 가운데 36곡(18.1%)에서 식물명이 등장하였다. 등장한 식물은 37종으로, 장미(4회), 도라지·진달래(각 3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연의 감각적 인식보다는 정서적 공감과 상징적 사고가 강화되기 때문에, 식물은 '계절적 정서'와 '감정의 비유'를 동시에 담는 표현 요소로 쓰였다. 특히 진달래나 도라지 같은 식물은 우리 민족의 전통 민요나 시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이어주는 매개로 작용한다⁴.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총 103곡 중 18곡(17.5%)에서 23종의 식물이 나타났으며, 도라지·동백·무궁화·배·장미·아주까리가 각각 2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 교과서의 노래들은 인문적 교양과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곡이 많았기 때문에, 식물의 상징성 또한 좀 더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컨대 무궁화는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동백은 '순결과 희생의 상징'으로,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비유'로 등장하며, 이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정서적 성숙을 동시에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편 찬송가에서는 총 645곡 중 14곡(2.1%)에서 식물이 등장하였으며, 종류는 6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백합과 장미가 각각 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찬송가의 경우, 식물

4 이상희. (2004).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3. 넥서스북스.

이 지닌 자연적 속성보다는 신앙적 상징이 강조된다. 백합은 ‘순결, 신성, 성모의 상징’으로, 장미는 ‘사랑, 희생,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 영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도상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찬송가 속 식물은 자연적 사실성보다 신앙적 의미의 상징 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식물의 출현 빈도와 종류는 장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요에서는 식물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수사적 장치로, 교과서에서는 자연 학습과 감성교육의 도구로, 찬송가에서는 신앙적 상징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결국 노랫말 속 식물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요소가 아니라, 각 장르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부여되는 다층적 문화기호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랫말 연구를 통해 식물이라는 자연언어가 어떻게 시대와 사회의 가치, 감정, 신앙, 교육적 이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2. 곡당 식물 출현 종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노래에서는 한 곡당 하나의 식물이 등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일부 노래에서는 두 가지 이상, 때로는 다수의 식물이 동시에 언급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식물이 한 곡 안에서 여러 개 등장한다는 것은 작사자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때, 하나의 상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다층적 자연 이미지를 병치하여 정서를 강화하거나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중 식물 등장 현상은 특히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교과서의 교육적 목적이 단순히 노래를 통한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자연 친화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의 「나물노래」가 있다. 이 곡에서는 고사리, 옷나무, 말냉이, 꽃다지, 씀바귀, 배나무, 가시나무, 넘나물, 갯나물 등 총 10종의 식물이 등장하여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종류를 포함하였다.

이 노래는 단순히 식물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봄철 들판의 생명력’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기쁨’을 노래함으로써, 아동들이 우리 주변의 식물과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즉, 여러 식물이 함께 노래되는 구조 자체가 생태적 다양성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바하이쿠보」에서는 강낭콩, 날개콩, 완두콩, 가지, 순무 등 7종의 식물이 등장한다.

이 곡은 필리핀 민요로, 다양한 작물과 채소를 나열함으로써 공동체적 농경생활의 따뜻한 풍경을 보여준다. 「염소」에서는 소루쟁이, 민들레, 토끼풀, 엉겅퀴, 콩 등 5종의 식물이 언급되며, 이는 염소의 먹이로 제시된 식물을 통해 생태계의 상호관계를 학습하도록 구성된 사례이다. 이 밖에도 「도레미노래」에는 도토리, 미나리, 라일락, 솔잎, 레몬 등 5종의 식물이 등장하여, 노래의 가사 구조 속에 식물 이름이 음악적 리듬과 어우러지는 언어적 재미를 더한다. 이러한 곡들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래에서 자연학습과 언어놀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대중가요에서는 한 곡 안에 여러 식물이 공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대부분의 곡이 특정 식물을 중심 상징으로 삼아 감정의 초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산너머 남촌에는」은 진달래, 밀감, 보리, 금잔디, 버들 등 5종의 식물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이 노래는 다양한 식물의 이미지를 나열함으로써, 고향 마을의 풍경과 계절적 정취를 다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곡의 구조상 식물들이 감정의 주제가 아니라 배경적 서정의 구성요소로 쓰였다는 점에서, 가요와 교과서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과서 수록곡과 가요의 본질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 교과서의 노래는 자연의 사물과 생명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지니며, 식물 이름은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아동이 언어를 통해 자연 세계를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의 도구로 사용된다. 반면, 가요의 식물은 감정의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상징화하는 정서적 장치로 기능한다. 즉, 교과서의 식물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요의 식물은 인간 내면의 정서를 투사하는 매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곡당 식물의 출현 종수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를 넘어, 노래의 기능과 수용 대상, 그리고 언어의 문화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다식물 노래는 자연에 대한 친근감과 생태적 감수성을, 대중가요의 단일 상징식 식물 사용은 인간 정서의 농축과 심미적 표현을 각각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노랫말 속 식물의 수와 구성 방식은 단순히 언어적 특징이 아니라, 각 장르가 지닌 문화적 미학과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

3.3. 출현 식물 종류의 특징

노랫말 속에서 식물은 단순히 자연의 사물을 지시하는 명칭에 머물지 않고, 노래의 정서적

분위기와 상징적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식물이 등장하는 배경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며, 같은 식물이라도 장르나 시대, 노래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상징 체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식물은 노래 속에서 단순히 ‘배경적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세계 인식이 투사되는 하나의 언어적 기호(sign)로 기능하고 있다.

먼저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들에서는 식물이 계절을 상징하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험을 반영하는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진달래, 벚꽃, 냉이, 찔레잎, 잔디밭, 개나리, 코스모스, 은행잎, 밤 등은 봄과 가을 등 계절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며, 사계절의 감각적 흐름을 음악을 통해 체험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식물들은 색깔과 향기, 질감 등 구체적인 감각을 불러일으켜, 어린이들이 자연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수박, 보리, 콩, 팥, 도토리, 도라지, 미나리 등과 같은 식물들은 생활문화와 식생활의 일부로서⁵, 농경사회적 일상과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배우게 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교과서 속 식물은 단순히 장식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감각과 학습이 결합된 실재적 존재로서 기능하며,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자연의 리듬과 농경사회의 생태적 순환을 체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과서에 등장하는 식물은 언어·음악·자연이 하나의 유기적 학습 구조를 이루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진달래나 개나리처럼 봄을 상징하는 식물은 생명의 탄생과 희망의 감정을 일깨우고, 코스모스나 은행잎처럼 가을을 상징하는 식물은 성숙과 변화, 덧없음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전통 사회의 농경적 시간 감각, 즉, 계절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이 이어진다는 인식을 노래 교육의 정서적 토대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중가요의 세계에서는 식물이 보다 상징적·은유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중가요는 교과서 노래와 달리 직접적인 학습이나 감각적 관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인의 내면 감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따라서 가요 속 식물은 실재적 존재라기보다 사랑, 이별, 그리움, 회상 등의 정서를 대변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활용된다.

흥미롭게도, 가요에서는 제목과 등장 식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전체 1,742곡 중 식물명이 제목에 명시된 경우는 약 23곡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동잎’, ‘앵두’, ‘라일락’, ‘목련’, ‘갈대’, ‘들국화’, ‘선인장’, ‘도라지’, ‘산유화’, ‘청포도’, ‘찔레꽃’,

5 안덕균. (2003). 한국본초도감(원색). 교학사.

‘장미’, ‘제비꽃’, ‘민들레’, ‘벚꽃’, ‘진달래’, ‘봉숭아’, ‘개나리’ 등이다. 이처럼 극히 일부의 곡만이 식물을 제목으로 전면화한 것은, 대부분의 가요가 식물을 정서의 상징이나 감정의 배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짚레꽃’은 가난한 사랑과 순수한 향수를, ‘라일락’은 젊은 날의 그리움을, ‘갈대’는 흔들리는 마음을, ‘장미’는 열정과 이별을 상징한다⁶.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인간의 감정이 자연과 은유적으로 결합하는 한국적 서정성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요 속 식물은 감정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자연물의 이미지 속에 그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어의 시적 표현 특성인 함축과 여백, 그리고 감정의 완곡한 표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1970~1980년대 이후로는 노랫말 속에 외래식물이 자주 등장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라일락, 플라타너스, 프리지아, 코코넛, 마로니에, 포플러, 리라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외래식물의 빈번한 사용은 단순히 식물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변안가요와 외국 대중음악의 영향, 그리고 서구적 정서의 유입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서구문화의 영향을 급속히 수용하던 시기로, 음악과 언어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외래식물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문화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⁷.

즉,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면서, 노랫말 속 자연의 의미가 변용된 것이다. 라일락과 프리지아는 ‘서구적 낭만’과 ‘도시적 세련미’를 상징하며, 플라타너스나 포플러는 ‘도시의 거리’, ‘이국의 감수성’을 환기시킨다. 이는 전통적인 ‘진달래’나 ‘짚레꽃’이 상징하던 토속적 정서와 대비되는 새로운 감성의 출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랫말 속 식물의 변화는 단순한 소재의 확장을 넘어, 한국인의 감성 구조가 전통에서 근대로, 지역에서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적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노랫말 속 식물의 종류와 의미는, 교과서와 가요라는 두 장르의 특성 차이뿐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흐름을 반영한다. 교과서의 식물이 자연의 교육적 체험과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했다면, 가요의 식물은 감정의 심리적 상징과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는 곧 노래라는 예술 형식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포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사적 단서가 된다.

6 하태문. (1987). 꽃말 꽃 전설: 꽃에 얽힌 사연들. 풍림출판사.

7 국립수목원. (2015).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 이름 목록집. 산림청·국립수목원.

3.4.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장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각종 설문 조사에서 장미는 늘 1위를 차지해 왔으며, 그 뒤를 국화, 코스모스, 안개꽃, 백합 등이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미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사랑’과 ‘열정’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장미는 총 44회 등장하여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만큼 장미는 노랫말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복합적인 의미를 담는 상징적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미의 상징성이 오래도록 유지된 이유는 그 생태적 기원과 품종의 다양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미는 이미 고대 문명 시기부터 인간의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왔으며,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스의 벽화나 유물에서도 장미의 재배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벽화에 그려진 장미의 모습으로 보아 기원전 2천년 이전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랜 세월을 걸쳐 모종이 교배되고 품종이 분화되면서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특히 19세기 이후 인위적 교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미는 세계적으로 약 15,000여 종의 품종을 가진 대표적인 관상식물로 발전하였다. 현재 재배되는 품종은 개화 시기와 꽃의 크기, 줄기의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사계절 내내 개화하는 사계성 대륜장미(Hybrid Tea Rose), 중간 크기의 꽃을 피우는 사계성 중륜장미(Floribunda Rose), 소형 화종의 극소륜장미(Miniature Rose), 덩굴처럼 자라는 클라이밍 로즈(Climbing Rose), 관목 형태로 성장하는 슈럽 로즈(Shrub Rose)가 그것이다⁸.

각 품종에는 ‘챔피언(Champion)’, ‘칵테일(Cocktail)’,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 등 인상적인 이름이 붙어 있으며, 이는 장미가 인간의 미적 감수성과 상징적 욕망을 담는 문화적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래 속에서 장미는 무엇보다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기능한다. 가사에서 장미는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그리움’과 ‘추억’을 동시에 품는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Happy Birthday to You’, ‘장미의 미소’ 등에서는 장미가 사랑의 설렘, 기다림, 축하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반면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백만 송이 장미’, ‘비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등에서는 이별과 상실, 사랑의 끝에서 느끼는 슬픔과 아픔의

8 윤평섭. (2002). 한국 원예식물 도감. 지식산업사.

상징으로 사용된다. 즉, 장미는 하나의 감정에 고정되지 않고, 사랑의 시작과 끝, 환희와 비통함을 동시에 함축하는 양가적 상징(ambivalent symbol)으로 작동한다.

1972년 이석이 부른 「비둘기집」에서는 가정의 화목함과 평온한 일상의 이미지가 장미의 붉은빛과 함께 묘사되어, 장미가 단지 연애의 상징만이 아니라 삶의 따뜻한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도 장미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월계꽃」으로 알려진 ‘들장미(Wild Rose)’는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괴테(J. W. von Goethe)의 시에 베르너가 곡을 붙인 작품으로, 그 표현의 아름다움 덕분에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등 여러 작곡가가 같은 시로 서로 다른 곡을 만들었다. 가사는 들판에 핀 장미꽃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노래하며, 유럽 낭만주의 음악이 식물의 상징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멕시코 민요 「모든 색깔들」에서는 여러 색이 등장하는데, 그중 빨간색을 장미의 색깔로 표현함으로써 장미를 색채의 상징으로 강조한다. 이처럼 장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대명사이자 사랑의 은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장미의 상징은 단순히 아름다움에만 머물지 않는다. 장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이미지가 바로 ‘가시(thorn)’이다. 가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식물학적으로 줄기에서 발생한 돌출 조직으로 열을 발산하고 초식동물의 침입을 막는 생존 장치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가시는 종종 삶의 고통과 시련, 사랑의 아픔으로 해석된다. “가시가 있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속담처럼, 장미의 본질은 아름다움과 고통의 공존에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 M. Rilke)는 장미를 사랑한 시인이자, 역설적으로 장미가시에 찔려 51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생전에 장미를 주제로 수많은 시를 썼으며, 죽은 뒤 자신의 묘비명에 “그대여, 장미처럼 그대의 이름을 지니고 잠드소서”라는 문장을 남겼다. 이 일화는 장미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존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장미의 줄기에 달린 가시는 줄기의 표피와 피층의 일부 세포층이 돌출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를 ‘피침(皮針)’이라 부른다. 피침은 줄기에 밀착되어 있으나 손으로 당기면 쉽게 떨어진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은 장미의 ‘가시’가 단순히 방어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 유지와 에너지 순환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문학적으로 꽃과 가시가 상반된 관계로 보이더라도, 자연의 관점에서는 대립이 아닌 공존의 질서를 드러내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장미의 학명은 *Rosa hybrida*이다. 속명 *Rosa*는 장미를 뜻하는 그리스어 'rhodon'과 켈트어로 붉은색을 의미하는 'rhodd'에서 유래하였으며, 종소명 *hybrida*는 '잡종(hybrid)'을 뜻한다. 즉, 장미는 이름부터 이미 '혼종과 융합의 꽃'인 셈이다. 이는 장미가 단일한 기원을 지닌 순수한 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배와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융합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이야말로 장미가 인간의 감정 구조—사랑과 욕망, 아름다움과 상처, 순수와 타락—를 상징하는 데 적합한 이유라 할 수 있다.

3.5. 의미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랫말 속 식물

노랫말 속 식물 가운데는 단순히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식물 외에도, 문화적 맥락이나 언어적 오해, 혹은 번역과정의 변형으로 인해 의미가 변형되거나 잘못 전승된 식물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진달래, 동백꽃, 갈대, 도라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식물은 모두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익숙하고 친근한 존재이지만, 각각의 곡이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으며, 때로는 본래의 생태적 정체성과 어긋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 진달래: 이별과 순정의 상징에서 향수의 표상으로

진달래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봄의 대표적인 식물로,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랫말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도 진달래는 총 10회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진달래가 가사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곡으로는 1922년에 발표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가곡화한 곡과, 김동환의 시에 작곡가 김동진이 곡을 붙여 1931년에 발표한 「봄이 오면」을 들 수 있다. 두 곡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다루고 있으며,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된다. 소월의 「진달래꽃」이 보여주는 절제된 슬픔, 즉 '떠나는 이를 원망하지 않고 꽃으로 보내는 이별의 품격'은 진달래라는 식물의 소박한 이미지와 맞물려 한국 서정시의 핵심 정조를 형성했다. 김동환의 「봄이 오면」에서도 진달래는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재생과 기다림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와 달리 1970년대 이용복이 부른 「어린 시절」에서는 진달래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등장한다. 가사 속 “진달래 먹고 강에서 물장구치며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동심과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이 노래는 1972년 미국 가수 클린트 홈즈(Clint

Holmes)의 「Playground in My Mind」를 번안한 곡이다. 원곡의 가사는 친구들과 놀고 웃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지만, 진달래나 다람쥐 같은 한국적 소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번안 과정에서 한국 청중에게 친숙한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진달래’라는 식물이 새로 삽입된 것이다.

이 사례는 진달래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한국인의 감정 코드를 대표하는 언어적 장치로 변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진달래는 이별의 상징에서 어린 시절의 향수로 의미가 확장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동백꽃: 순결과 희생, 그리고 오해의 역사

동백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피는 겨울꽃으로,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붉게 피어나는 아름다움 때문에 예로부터 순정, 인내,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노랫말 속 동백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시대적 감정과 역사적 맥락이 교차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노래 속 동백꽃은 「울릉도 트위스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슬픈 정조를 띤다. 「동백섬 그 사람」, 「서귀포 사랑」, 「해조곡」, 그리고 이미자가 1964년에 부른 「동백아가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동백아가씨」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곡으로 꼽힌다.

이 곡은 한때 정부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야 해금되어 20여 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금지의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진다. 하나는 곡의 선율이 일본의 엔카풍과 유사해 ‘왜색(倭色)’이 짙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은 한일수교를 앞두고 국민적 반감이 높았으며, 일본 문화의 유입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대중음악을 통한 일본 문화 확산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곡의 음색 자체가 정치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이유는 가사 속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갱게 멍이 들었소”라는 구절 때문이다. 이 표현이 당시의 억압된 현실과 상처받은 민중의 정서를 은유한다고 해석되면서, 체제 비판적 의미로 오인되었고 그로 인해 금지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문학작품에서도 ‘동백’의 의미는 혼란스럽게 변주된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서 등장하는 ‘동백’은 실제 동백나무의 붉은 꽃이 아니라, 생강나무의 노란 꽃을 지칭한다. 두 식물은 모두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름이 혼용되었다. 그러나 생강나무는 추운 지역에서도 자생하는 반면, 동백나무는 남부 해안 지방에서만 월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춘천 지역에서는 생강나무를 ‘가짜 동백’이라 하여 ‘개동백’ 혹은

‘산동백’, ‘동박나무’로 불렸고, 이후 두 식물이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처럼 동백은 음악과 문학 양쪽에서 모두 상징의 중첩과 오해의 역사를 지닌 식물이다. 대중음악 속 동백은 슬픔과 저항의 은유로, 문학 속 동백은 지역 언어와 식물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을 수 있다.

(3) 갈대: 흔들리는 마음과 번역의 오해

갈대는 한국 가요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에는 흥미로운 문화적 전환이 있다. 갈대가 등장하는 곡들 중 윤수일의 「아파트」나 쿨의 「해석남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래는 애잔하고 슬픈 분위기를 지닌다. 「사랑의 송가」, 「갈대의 순정」, 「소양강 처녀」, 「숨어 우는 바람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기원은 의외로 유럽 오페라의 변안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1851년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리골레토」의 3막에서 만토바 공작이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è mobile)〉의 원문 가사는 “여자는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번역 가사에서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 한 줄이 이후 한국 가요 전반에 걸쳐 ‘갈대=변덕스러움, 슬픔, 흔들림’이라는 상징을 고착화시켰다. 그 결과, 갈대는 본래 유연하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에서는 감정의 불안정함과 이별의 비유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즉, 번역의 선택이 한 식물의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낸 셈이다.

이 사례는 언어와 번역이 문화적 상징 체계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갈대는 생태적으로 바람에 흔들리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식물이지만, 한국 노랫말에서는 오히려 슬픔과 변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원문 의미의 왜곡을 넘어, 한국적 정서가 외래 문화를 수용하며 새롭게 재해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 도라지: 민요의 원형에서 상업적 기호로

도라지는 전통적으로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쓰이지만, 노랫말 속에서는 단순한 식물이나 민속 정서의 상징이자 향토성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도라지가 찬송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노래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도라지가 대중음악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로, 서구의 음악 장르가 급속히 국내에 유입되던 시기였다.

특히 미국의 라틴 재즈와 아프리카풍 쿠바 리듬이 결합된 맘보(Mambo)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리듬에 맞춘 노래들이 제작되었다. 1955년에 발표된 「아리랑 맘보」와 「도라지 맘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중 「도라지 맘보」는 전통 민요 ‘도라지 타령’의 가사 일부를 차용하여 대중음악의 리듬과 결합시킨 곡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서구적 음악 감각이 절묘하게 융합된 작품이었다. 이러한 장르적 혼종은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에도 도라지는 다양한 형태로 가요에 등장한다. 1994년 발표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에서는 가사 중 “도라지 위스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이 표현의 기원은 실제 도라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광복 이후 미군을 통해 위스키가 국내에 소개되자, 이를 모방한 가짜 위스키가 국내에서 제조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일본에서 수입된 ‘도리스 위스키(Doris Whisky)’라는 상품이 상표권 문제로 국내 생산이 어려워지자, 부산의 한 양조장에서 상표를 변경하여 ‘도라지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술에는 도라지 성분이 전혀 없었고, 위스키 원액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일화는 도라지가 실제 식물이 아니라, 상품명과 상징어로 변용된 사례이며, 나아가 민속적 정서가 상업적 언어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도라지는 ‘향토적 소재에서 대중문화의 브랜드’로 변모한 식물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요,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그리고 찬송가 등 총 3,044곡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식물의 등장 양상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사에 등장하는 식물의 이름을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식물이 노랫말 속에서 어떠한 정서적·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음악과 자연,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밝히려는 시도였다.

연구 결과, 식물 이름이 등장한 곡은 총 290곡으로,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였다. 이들 노래에서 확인된 식물의 종류는 136종으로, 이는 한국 대중문화 속에 자연이 얼마나 풍부한 상징 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장미(44회)가 압도적으로 높은 등장 빈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진달래(19회), 갈대와 잔디(각 15회), 버드나무(12회), 개나리와

동백나무(각 10회)가 이었다. 이와 같은 빈도 분석은 특정 식물이 단순한 장식적 소재를 넘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매개하는 중요한 기호로 기능해왔음을 입증한다.

분야별 비교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요에서는 사랑, 이별, 그리움 등 감정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으로 식물이 자주 등장하였으며, 교과서 수록 곡에서는 자연 학습과 계절의 변화, 생활과 농경의 리듬을 노래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다. 반면 찬송가에서는 백합과 장미 등 신앙적 상징성을 지닌 식물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도상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물이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각 장르의 목적과 수용층, 그리고 정서적 세계에 따라 다층적으로 의미화되는 문화 기호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빈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의미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내포한 노랫말 속 식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진달래는 사랑과 이별의 상징에서 향수와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변주되었고, 동백꽃은 순결과 희생의 표상이면서도 정치적 오해와 문화적 혼동의 역사를 겪었다. 갈대는 원래 유연함과 생명력의 상징이지만 번역의 오류로 인해 ‘변덕’과 ‘슬픔’의 표상으로 고착되었으며, 도라지는 민요적 정서에서 상업적 상징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노랫말이 단순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와 사회, 언어의 변화가 축적된 문화적 텍스트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식물의 등장이 단순히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와 시대의 기억을 반영하는 심리적·문화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나물노래’에서부터 대중가요 ‘백만 송이 장미’, ‘동백아가씨’에 이르기까지, 식물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상징하는 언어로 기능했다. 이는 곧 한국인의 정서가 자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문화적 순환 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연구는 방대한 한국 노랫말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노래가 수만 곡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그 중 일부를 분석한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교과서·찬송가라는 세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특히 교과서 노랫말을 포함시킨 것은, 대중문화 연구를 어린 시절의 음악 교육과 연결시켜, 한 사회의 정서 형성 과정을 문화사적 시각에서 조명한 중요한 시도였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장르 즉 동요, 민요, 창가, 그리고 현대 대중음악을 포함해, 시대별로

식물의 등장 양상과 상징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언어학, 음악학, 식물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식물 이미지의 변형과 확산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융합적 연구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자연과 인문학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랫말 속 식물은 인간의 감정이 투영된 예술적 언어이자, 동시에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생태적 통로이다. 자연과 인문학의 융합 연구는 단지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는 문화 생태학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기억 속에 자리한 식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중문화의 내면적 생태를 탐구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자료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더 풍부한 문화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본 연구가 자연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융합학문의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음악과 식물의 만남은 단순한 취향의 결합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이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상호공명(相互共鳴)의 문화적 행위이다. 본 연구가 그 공명 속에서 대중문화의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모색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Ahn, D. G. (2003). Illustrated encyclopedia of Korean medicinal plants. Kyohaksa.
- Chungcheongnam-do Forest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014). In search of flower language with stories. Chungcheongnam-do Forest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 Ha, T. M. (1987). Flower language and flower legends: Stories related to flowers. Punglim Publishing.
- Korea National Arboretum. (2015). English names of native plant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Forest Service & Korea National Arboretum.
- Korea National Arboretum. (2017). National standard plant list (Revised ed.). Korea National Arboretum.
- Lee, S. H. (2004). Korean culture seen through flowers (Vol. 3). Nexus Books.
- Park, S. H. (2008). Illustrated flora of Korea (Vol. 2: Pteridophytes). Korea National Arboretum.
- Yu, G. E. (2018). Stories of trees connected in a chain. Jiseongsa.
- Yu, G. E. (2023). Stories of flowers in song lyrics. Hwangsogeooreum.
- Yun, P. S. (2002). Illustrated guide to Korean horticultural plants. Jisik Industry Publishing Co.

노랫말 속 식물의 상징과 문화적 의미: 가요·교과서·찬송가에 나타난 자연과 인문학의 융합적 해석

유기억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가요,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랫말 속에 등장하는 식물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자연과 인문학의 융합적 관점(생태 인문학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랫말 속 식물이 인간의 정서와 기억,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음악 언어 속에 내재된 생태문화적 감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분석 대상은 가요 1,742곡,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355곡, 중학교 199곡, 고등학교 103곡, 찬송가 645곡 등 총 3,044곡이다. 각 곡의 제목과 가사에서 식물이 언급된 경우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와 맥락을 중심으로 통계적·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장르별 특징을 비교하여 식물이 지니는 정서적·상징적 의미를 유형화하였다.

결론 전체 3,044곡 중 290곡(9.5%)에서 식물명이 확인되었으며, 총 136종이 등장하였다. 이 중 장미(44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진달래(19회), 갈대·잔디(15회), 버드나무(12회), 개나리·동백(10회) 등이 뒤를 이었다. 장르별로는 가요에서 사랑과 이별의 정서, 교과서에서는 계절과 생활의 감각, 찬송가에서는 순결과 신앙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이 결과는 식물이 단순한 자연 소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문화적 경험을 매개하는 상징적 코드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랫말의 분석을 통해 자연과 인문학의 융합연구(eco-humanities)가 지닌 학문적 의의와 대중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노랫말, 식물 상징, 문화적 의미, 가요, 교과서, 찬송가, 생태인문학, 융합연구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